

#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## 미 증시, 연착륙 기대감에 6주 연속 상승 마감

### Key Takeaways

- 11월 비농업취업자수 +19.9만명 기록...시장 예상 +18.5만명, 지난 달 +15.0만명 상회
- 실업률 3.9%에서 3.7%로 개선.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전월대비 +0.4% 상승
-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69.4로 개선.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4.5%에서 3.1% 큰 폭 둔화

### 변화요인

- **미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 마감.** S&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22년 3월과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. 또한 S&P 500과 다우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각각 2019년 11월과 2월 이후 가장 긴 상승패라. 11월 고용보고서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조사에 나타난 긍정적 지표 결과가 증시 상승을 견인. 국제유가는 2% 넘게 상승하였고, 2년물 국채수익률이 12bp 넘게 상승하는 약세 플래트닝 나타내며 10년물과의 장단기금리차는 다시 확대되며 -50bp에 육박. VIX 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. (다우 +0.36%, 나스닥 +0.45%, S&P500 +0.41%, 러셀2000 +0.76%)
- **11월 고용보고서:** 11월 비농업취업자수는 19.9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 18.5만명과 지난 달 15만명을 상회. 실업률은 3.9%에서 3.7%로 개선되었고, 경제활동참가율은 62.8%로 지난 달 62.7%에서 소폭 개선. 고용은 늘고(+74.7만명) 실업은 감소(-21.5만명)하며 고용시장의 양적, 질적 개선 나타나.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.4% 상승하며 시장 예상(+0.3%)을 상회.
- **12월 미시건대 소비자조사:**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69.4로 시장 예상 62.0과 지난 달 61.3을 크게 상회.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(68.3→74.0)와 향후 기대지수(56.8→66.4) 모두 크게 개선. 또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달 4.5%에서 3.1%로 급감. 이는 향후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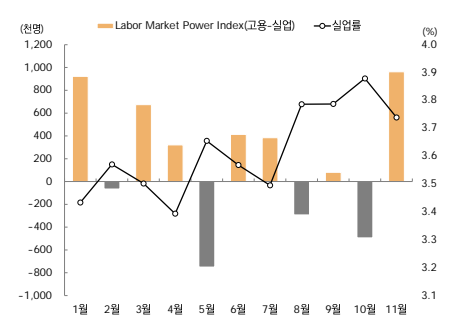
### 특징종목

- S&P 500 주요 섹터 중 에너지(+1.1%), IT(+0.9%), 금융(+0.5%) 등 7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, 필수소비재(-0.7%), 부동산(-0.2%) 등 4개 업종은 하락.
- 주요 Big 7 기업 중 알파벳(GOOG, -1.4%)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모두 상승. 특히, 엔비디아(NVDA, +2.0%)와 메타플랫폼(META, +1.9%) 상승폭이 비교적 컸음. 파라마운트글로벌(PARA, +12.1%)가 보유하고 있는 National Amusement의 파 인수 가능성에 상승. 도큐사인(DOCU, +4.9%)은 연간 매출 전망치 상향 소식에 강세. 룰루레몬(LULU, +5.4%)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3분기 실적에 상승했지만, 연말 전망은 보수적으로 내놔. 반면, 달러제너럴(DG, -3.8%)은 3분기 실적은 개선되었지만 동일점포 매출은 감소와 소비자 지출 둔화 전망에 약세. 엔페이즈(ENPH, -3.9%)는 CEO가 1,6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톡옵션 행사 소식에 하락.

### 한국증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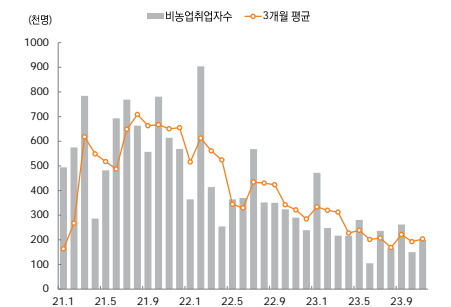
- MSCI 한국 지수 ETF는 0.6% 상승, MSCI 신흥 지수 ETF는 0.4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14.85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7원 상승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01% 하락. **KOSPI는 0.1%-0.3% 내외의 강보합권 출발 예상.** 건조한 미국 경기는

그림 1. 11월 실업률 3.7%로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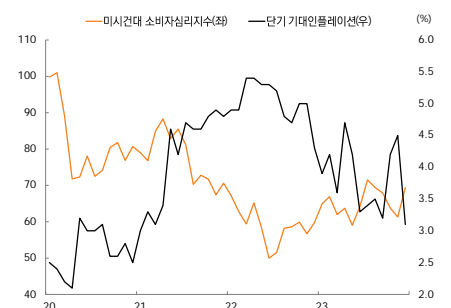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2. 비농업취업자 수 추이



자료: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3. 소비심리 개선, 기대인플레이션 하락



자료: 미시건대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# Market Snapshot

주요 ETF			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+1.2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5
클린테크 ETF (CTEC)	-0.5	중형 가치주 ETF (IWS)	+0.4
소매업체 ETF (XLY)	+0.5	소형 가치주 ETF (IWN)	+0.6
온라인소매 ETF (EBIZ)	+0.1	대형 성장주 ETF (VUG)	+0.5
미국 인프라 ETF (PAVE)	+0.4	중형 성장주 ETF (IWP)	+0.4
핀테크 ETF (FINX)	+1.5	소형 성장주 ETF (IWO)	+0.8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0.4	퀄리티 배당주 ETF (ODIV)	+0.1
클라우드 ETF (CLOU)	+1.0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-0.6
사이버보안 ETF (BUG)	+1.2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-0.3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+0.4	미국 국채 ETF (IEF)	-0.6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+0.4	하이일드 ETF (JNK)	-0.2
바이오섹터 ETF (IBB)	-0.7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2
로봇&AI ETF (BOTZ)	+0.6	물가연동채 ETF (TIP)	-0.1
반도체 ETF (SMH)	+0.9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OD)	-0.5

US Sector Index				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에너지	623.22	+1.1	-3.3	-2.3
IT	3,302.74	+0.9	+0.7	+3.4
금융	598.79	+0.5	-0.1	+6.4
경기소비재	1,369.43	+0.4	+1.1	+6.9
소재	513.85	+0.3	-1.7	+5.6
산업재	918.97	+0.3	+0.2	+6.1
헬스케어	1,535.68	+0.2	+0.2	+4.5
커뮤니케이션	237.50	-0.2	+1.4	+2.4
유틸리티	319.56	-0.2	-0.3	+4.5
부동산	236.99	-0.2	-0.4	+10.0
필수소비재	737.75	-0.7	-1.2	+1.3

글로벌 FICC 동향							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1.23	+2.7	-3.8	Dollar Index	104.010	+0.5	+0.7
브렌트유	75.84	+2.4	-3.9	EUR/USD	1.0763	-0.3	-1.1
천연가스	2.58	-0.2	-8.3	USD/JPY	144.95	+0.6	-1.3
금	2,014.50	-1.6	-3.6	GBP/USD	1.2549	-0.4	-1.3
은	23.28	-3.3	-10.0	USD/CHF	0.8799	+0.5	+1.2
알루미늄	2,134.00	+0.1	-3.4	AUD/USD	0.6579	-0.3	-1.4
전기동	8,448.50	+1.3	-1.9	USD/CAD	1.3583	-0.1	+0.6
아연	2,399.50	-0.3	-4.4	USD/RUB	91.8246	-0.6	+0.9
옥수수	485.50	-0.5	+0.2	USD/BRL	4.9304	+0.5	+1.0
밀	631.75	-1.6	+4.8	USD/CNH	7.1872	+0.3	+0.9
대두	1,304.00	-0.6	-1.6	USD/KRW	1,306.80	-1.4	+0.1
커피	177.15	-0.2	-3.9	USD/KRW NDF1M	1,314.85	+0.2	+1.7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4.226	+7.6	+3.0	스페인	3.300	+10.6	-6.0
한국	3.534	-4.1	-16.6	포르투갈	2.950	+10.4	-5.7
일본	0.766	+0.8	+6.9	그리스	3.459	+8.5	-12.6
독일	2.276	+8.5	-8.6	이탈리아	4.073	+13.6	-2.8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